

삼성항공—록히드 KTX-2 내년 개발 착수

그동안 추진 여부가 불투명 했던 KTX-2(고등훈련및 경공격용 초음속 전투기)개발 사업이 내년 부터 본격 착수돼 오는 2002년께 개발 완료된다. 4월 24일 관계당 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고위정책담당자 회의에서 KTX-2사업의 양산(체계)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한데 이어 내 달중 '획득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발방안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 오는 10월중 국방부 전력정비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6년초부터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전투기를 삼성항공과 미국의 록히드사가 공동 개발토록 하고 늦어도 금년 8, 9월 중에는 이를 위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7년간 총 1조2천억원(15억달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비는 국방부와 미 록히드사가 각각 80대 20의 비율로 부담키로 했다.

고등훈련기 F-5A/B, 40% 가량 노후화로 운항못해

공군의 전투및 훈련용 F-5A/B 항공기가 운항 중지될 전망이다.

공군은 5월 9-10일 공군전문요원과 '기술협조기구'(TCG)간 회의를 거쳐 F-5A/B항공기의 운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군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 항공기 전문기관인 '기술협조기구'(TCG)가 "한국 공군의 F-5A/B기는 장기 취역으로 항공기 구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온 데 따른 것이다.

공군은 이미 4월말 장기취역 항공기 운영 검토위 회의를 통해 전체 F-5A/B기 40%를 비행 중지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공군의 F-5A/B기는 미노드롭사 제품으로 지난 65년에 도입, 항공기 수명 8천4백44시간 보다 훨씬 초과 운항해왔다.

공군은 이에앞서 "F-5A/B항공기 비행중지에 따른 훈련차질을 막기위해 고등훈련기 조기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형 아음속 풍동 5월에 국내설치

중형 아음속풍동이 98년 5월까지 국내에 설치된다.

또 2000년경 고속항공기를 제외한 헬리콥터,자동차등의 비행주행시험을 위한 풍동시설도 마련될 계획이다.

항공우주연구소 공력성능연구그룹은 최근 총 3천4백평에 3백24억원이 투입되는 이같은 장비설치에 착수했다.

우선 올해부터 98년까지 1백84억원을 들여 약 1천평의 부지에 공기흐름 속도가 초당 최저 10m에서 최고 1백10m(시속 4백km)에 이르는 아음속의 시험시설을 갖춘다는 것.

이 시설의 표준시험부는 폭 4m, 높이 3m, 길이 10m로 1백인승 항공기 10분의 1모델과 제트기 4분의 1모델에 대해 각종 비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중형의 풍동이다.

이어 2000년경 1백40억원의 예산으로 항공기의 표준시험부보다 2배정도 큰 시험부와 부대시설을 2천4백평의 부지에 만들어 단면적이 큰 헬리콥터, 자동차 등 모델의 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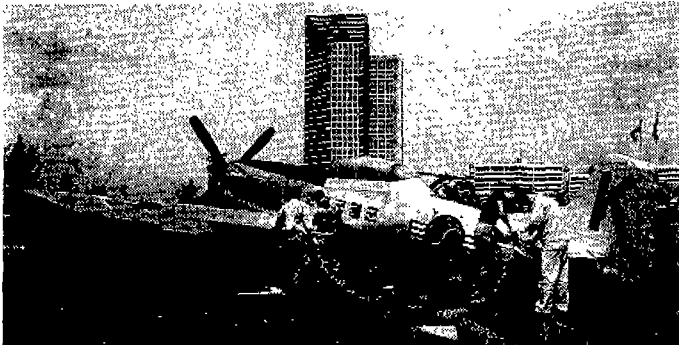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음속 풍동은 미항공우주국(NASA)의 에임연구소가 가진 것으로 시험 부가 폭 26m, 높이 36m로 전체면적은 1만6천평이나 된다.

현재 미국이 49개소, 일본은 30개소의 중대형 풍동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만에도 중형이 한곳씩 설치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규모가 현재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삼성항공, 항공우주 박물관 건립추진

서울 여의도의 안보전시장이 설립 20년만에 경남 사천으로 옮겨지고 이 자리에 무역전시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여의도동23 안보전시장을 사천비행장 옆에 조성중인 삼성항공 항공우주기념관으로 6월까지 이전하고 연말까지 이자리에 중소기업 무역전시장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 안보전시장의 항공기를 사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분해하고 있다.

이 부지는 지난 75년 6·25전쟁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반공종합전시회를 계기로 안보전시장으로 활용돼 왔다. 공보처는 지난해까지 이 부지를 무상임대, 안보전시장을 운영했다.

대한항공, 현지채용 외국인직원 3개월간 한국서 연수

대한항공이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들을 3개월간 한국에 연수시키는 [우수 외국인직원(RS) 본사파견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4월 21일 해외현지 외국인 직원들을 서울본사로 유치,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이해시켜 해외지역 관리자로 집중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각 지점에 근무하는 대한항공 현지 외국인직원은 모두 1천7백여명으로, 전체직원의 10%에 달한다.

수출입은행, 삼성에 5천2백만불 해외투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삼성전자와 삼성항공이 추진중인 일본 유니온광학(주) 인수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5천1백86만달러의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삼성항공이 공동으로 투자, 반도체 장비와 광학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유니온광학을 인수, 일본시장 진출의 전략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국제금리 연동 변동금리 조건이다.

보잉777기 국내서 시범 비행

보잉사는 4월 10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5월에 출시 예정인 중형 여객기 B777기에 대해 1시간 동안 시범비행 행사를 가졌다.

이날 비행에서 첫 선을 보인 B777기는 다음달 미 유니티드항공에 인도될 여객기로 B747(탑승인원 4백석규모)과 B767(2백18명규모)의 중간 크기로 최대 3백40명까지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일명 '트리플 세븐'으로도 불

리는 B777의 대당 가격은 옵션에 따라 1억1천6백만~1억4천6백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은 이미 8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다.

보잉사는 우리나라에서의 시범비행을 마치고 베이징, 홍콩, 타이페이에서 잇따라 시범비행을 열어 B777기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3사, 보잉사와 항공기 제작 협력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후지중공업 등 3개사는 4월 18일 미국 보잉사와 공동으로 보잉737 소형 제트여객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96년초부터 공동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보잉737 항공기 날개의 플랩을, 가와사키는 날개구조를 지탱하는 리브를, 그리고 후지중공업은 항공기 꼬리 부분인 Tail Elevator를 각각 제작하기로 했다.

일본 항공기 제작업체들은 미국 업체들과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맺고 80년대초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잉 767기의 몸체와 부품들을 생산해왔다.

중국, 초음속 무인항공기 시험비행 성공

中國은 無人 초음속 항공기의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解放軍報가 4월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시험 비행이 사막의 한 기지에서 수행됐다고 밝히고 이로써 중국은 무인 초음속 항공기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시험비행 자료의 분석 결과 이 항공기의 다양한 기능과 세부 사항이 설계상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상에서 원격조정된 이 항공기는 1만m 상공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했으며 방향조정도 몇차례 성공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中國 공군은 이번 시험비행을 위해 4년간 10가지의 중요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최종 조립중인 C-130J-30 1호기, 96년에 영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C-130J 1호기 최종 조립 착수

美록히드 항공사는 최근 C-130J 허큘리스 수송기 1호기의 최종 조립에 착수했다. 현재 생산중인 5가지 C-130J 모델중 하나인 이 신형 허큘리스 수송기는 C-130J-30(개량형)기종으로, 록히드 항공사가 영국 국방부의 계약하에 제작·인도하게 되어있는 25대중의 제 1호기이다.

이 최신 C-130J에는 첨단기술의 통신시설, 보다 강력한 추력의 엔진 및 프로펠러, 그리고 최첨단의 항공전자장비를 통합운용하는 컴퓨터가 장착될 예정인데, 록히드 항공사의 이 신형 C-130J의 최초 비행은 금년말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록히드 항공사의 C-130J 허큘리스 수송기의 인도는 1996년에 시작될 것인데, 현재 조립중인 5대중 3대는 영국 공군으로, 2대는 미 공군에 인도될 것이다.